박병호 30홈런 양현종·유희관 10승…위기의 연속기록들

박병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연속 30홈런 달성
올해 20개로 뚝 떨어져…컨디션 난조에 각종 부상 시달려
첫 FA앞둔 유희관, 올해 8승 그쳐…양현종도 '아홉수'

수년 간 지속해 온 연속 기록이 깨질 처지에 놓인 몇몇 선수들에게 2020시즌 프로야구의 종료는 달갑지 않게 다가올 지도 모른다.

박병호(키움 히어로즈)는 연속 시즌 30홈런이 위태로워졌다. 박병호는 2012년부터 2019년(2016~2017년 해외진출 제외)까지 6년 연속 30개 이상의 타구를 담장 밖으로 날렸다.

하지만 올해 홈런수는 20개로 뚝 떨어졌다. 컨디션 난조와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86경기 밖에 소화하지 못한 탓이다.

이승엽(1997~2003년)만이 갖고 있는 7년 연속 30홈런에 턱밑까지 다가선 박병호의 도전은 여기서 막을 내릴 공산이 크다.

최근 라인업에 복귀한 박병호에게 남은 기회는 8경기뿐이다. 몰아치기에 능한 박병호라도 8경기 10홈런은 쉽지 않다.

투수 중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이는 두산 베어스 좌완 선발 유희관이다.

유희관은 130㎞대 느린공으로도 정교함이 뒷받침 되면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 선수다. 선발로 자리매김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현역 선수 중 가장 오랜 기간 연속 시즌 두 자릿수 승리 기록을 유지 중인 유희관은 생애 첫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을 앞둔 올해 8승(11패)에 그치고 있다.

8월28일 NC 다이노스전에서 8번째 승리를 챙길 때만 해도 무난히 기록을 연장할 것으로 보였지만 이후 5번의 선발 등판에서 4패 만을 떠안으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심지어 지금은 1군에서 사라졌다. 가을야구를 위해 매경기 전력을 다해야 하는 팀 사정을 감안하면 기회가 주어질 지도 알 수 없다.

박병호

양현종

유희관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은 7년 연속 10승을 목전에 두고 지독한 아홉수에 빠졌다. 8월28일 SK와이번스전 승리 이후 7번이나 쓴맛을 봤다.

1승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다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유희관보다는 상황이 낫다.

4년 연속 20세이브의 통산 6번째 주인이 되려던 정우람(한화)도 맘이 급하긴 마찬가지다. 정우람은 자신과 팀의 부진 속에 올해 15세이브 밖에 수확하지 못했다.

이미 통산 4번째 7년 연속 10세이브 기록을 확보한 것도 대단하지만 20세이브가 주는 무게감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한화의 잔여 경기수는 '13'. 정우람의 연속 20세이브가 5년째를 향하기 위해서는 남은 경기 세이브 상황이 최소 5차례 마련돼야 한다.

뉴시스

남자프로농구도 관중석 문 열린다…17일부터 유관중

방역 지침 준수 하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 20% 중반 수준 입장

무관중으로 2020~2021시즌을 개막했던 남자프로농구도 관중들에게 문을 연다.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지침에 따라 17일 경기부터 관중 입장을 시행하기로 하고, 14일 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지침 준수 하에 관람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때까지 각 구단 홈 경기장별로 수용 가능 인원의 20% 중반 수준에서 관중을 받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2시 인천삼산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인천 전자랜드-창원 LG의 경기와 오후 6시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원주 DB-안양 KGC인삼공사의 경기는 관중 입장이 확정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울산동천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울산 현대모비스와 고양 오리온의 경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남아있어 아직 관중 입장이 미정이다.

남자프로농구는 2019~2020시즌을 진행 중이던 지난 2월말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무관중 경기로 전환했다.

2월2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정규시즌을 치르던 남자프로농구는 3월1일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가 3월24일 시즌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

2020~2021시즌 남자프로농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이달 9일 무관중으로 개막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고,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최대 30%까지 허용하면서 관중 입장이 가능해졌다.

KBL과 10개 구단은 지난 12일 관중 입장에 대해 협의한 결과 17일부터 관중을 받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장 수용 인원의 최대 3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지만, 안전을 고려해 일단 20% 중반대만 관중을 받기로 결론을 내렸다.

프로농구 관중 입장이 시행됨에 따라 24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 경기 시작 시간도 종전 오후 2시·6시에서 오후 3시·5시로 변경된다.

입장권 예매는 관람객 정보 확인을 위해 1인 1티켓으로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 동반인의 티켓을 구매할 경우 KBL 통합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입장권을 전달해야 한다.

KBL은 "10개 구단과 함께 올 시즌 프로농구 관중 입장과 관련해 좌석간 거리두기, 경기 관람 중 마스크 착용, 관람석 취식 금지 등 안전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벤투호, 11월 북중미·중동팀과 평가전 유력

오스트리아서 두 차례 친선경기…손흥민·황희찬·이강인 등 유럽파 소집할 듯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11월 유럽 원정길에 오른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벤투호는 11월 A매치 기간에 오스트리아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 상대팀은 북중미과 중동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북중미, 중동 국가와 대결이 확정적이다. 오스트리아 내 개최 도시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장소와 시간이 확정되면 양 국에서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국가가 제외된 건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남미, 아프리카, 북중미 등 타 대륙 국가와 평가전을 추진했고, 북중미와 중동에 속한 팀과 친선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정확한 국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중미 강호인 멕시코가 11월 유럽에서 일본과 평가전이 예정돼 있어 한국과도 친선경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10월에도 네덜란드에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을 치르고, 11월에도 유럽 원정에 나선다.

유럽 평가전 장소로 유력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 격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유럽 원정 A매치가 확정되면 벤투호는 11월 9일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집엔 유럽파를 비롯해 해외파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 황희찬(라이프치히), 이강인(발렌시아) 등이 오랜만에 벤투호에 모인다.

또 프로축구 K리그 소속인 선수들도 리그가 11월 초 종료되기 때문에 유럽 원정 참가에 문제가 없다. 11월18일부터 재개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전북현대, 울산 현대, FC서울, 수원 삼성 선수들은 A매치를 마친 뒤 곧바로 대회가 열리는 카타르로 이동한다.

벤투호는 지난해 12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동아시안컵 이후 10개월 만에 김학범 감독의 23세 이하(U-23) 올림픽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렀다.

지난 9일 1차전에선 2-2로 비겼고, 12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차전이 열린다.

뉴시스

전북현대, 18일 광주전 1만명 직관 가능

유관중 경기 진행 오늘 티켓예매 오픈…1만201명 입장 가능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팬들과 다시 함께 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K리그가 유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전북현대는 오는 18일(일)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된 K리그1 25라운드 광주FC와의 홈경기부터 유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최대 1만201명의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현대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즌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우선예매를 실시하고 일반예매는 15일 오후 2시에 오픈한다.

티켓 판매운영은 방역당국과 연맹 지침에 따라 전주월드컵경기장 총 좌석의 25%인 1만201석을 지정석으로 온라인 예매만 실시한다.

관람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에서 현장 판매는 실시하지 않으며 경기 당일 매표소에서는 예매권 수령만 가능하다.

경기장 입장은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가능하며 37.5℃ 이상 발열 증상이 나타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입장이 불가하다.

또한 입장 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운영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을 포함한 주류 등은 취식 및 반입이 금지돼 물과 음료만 가능하다.

입장한 팬들은 경기 중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육성응원은 금지될 예정이다.

뉴시스

팬그래프닷컴 "김하성, 1억달러 계약 가능한 선수"

2020시즌을 마치고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MLB)에 도전할 수 있는 김하성(25·키움 히어로즈)이 현지 매체로부터 "1억달러 규모의 계약이 가능한 선수"라는 극찬을 받았다.

미국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13일(한국시간) 김하성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경우 향후 5년 간의 예상 성적을 산출했다. 그러면서 "좋은 유격수가 없는 팀은 이번 오프시즌에 김하성 영입을 강력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팬그래프닷컴은 "KBO리그에서 6년째 풀타임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하성은 올 시즌 유격수와 3루수로 뛰며 타율 0.310, 출루율 0.401, 장타율 0.532를 기록 중이다"며 "김하성은 10대에 데뷔했음에도 2018년에 작성한 0.832보다 낮은 OPS(출루율+장타율)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팬그래프닷컴은 김하성의 나이에도 주목했다. 이 매체는 "김하성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강점"이라며 "김하성이 미국에 진출한다면 KBO리그 출신 선수 중 가장 어린 나이에 미국 무대를 밟게 된다"고 소개했다.

스카우팅 관점에서도 김하성에게 우려되는 점이 없다고 강조한 팬그래프닷컴은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김하성을 유망주 상위 100명 중에 한 명으로 꼽았으며 미국 진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 선수들 가운데 최고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팬그래프닷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해 불확실성이 많은 오프시즌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김하성 같은 선수는 1억달러(약 1149억원) 규모의 계약을 할 수 있다"며 "다만 다른 리그에서 오는 선수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성을 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